

규슈 도자 문화관의 개요

규슈 도자 문화관은 규슈와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도자기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목적으로 1980 년에 개관했습니다. 국가 중요문화재 2 점을 포함하여 약 30,000 점의 소장품이 있으며, 규슈의 도자 문화에 관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시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산업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수장, 보존, 연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오래된 작품부터 새로운 작품까지 다양한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전 외에 상설전에서는 일본 예술원 회원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국보)로 인정받은 분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 안내

이 박물관은 5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울러 1,500 점 정도가 상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번호순으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제 1 전시실: 아리타 도자기의 역사
- 제 2 전시실: 시바타 부부 컬렉션
- 제 3 전시실: 규슈의 고도자기
- 제 4 전시실: 현대의 규슈 도예
- 제 5 전시실: 일반 전시실

전시홀에 있는 아리타 도자기 가라쿠리 오르골 시계, 실외에 있는 마이센 종이라고 불리는 25 개의 자기종, 안뜰에 있는 마이센 자기로 만들어진 백자관화식조분수 등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 부지 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벽과 바닥, 문에도 아리타 도자기로 만들어진 타일과 집기가 사용되었습니다.